

국민체육진흥공단·동아일보 공동 주최 '투르 드 코리아 2018 스페셜' 7일 고성서 개막

#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평화의 길' 달린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투르 드 코리아 2018 스페셜'이 7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개막한다. 20개팀 170명이 대회 상금 2000만원을 놓고 3일간 경쟁에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투르 드 코리아 2017 스페셜' 레이스 장면. 스포츠동아 DB

20개팀 170명 참가·상금 2000만원 첫날엔 고성·2일째 화천·3일째 파주 DMZ 접경지역 거점으로 레이스 진행 개인종합·스프린트 등 부문별 수상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투르 드 코리아 2018 스페셜'이 7일 강원도 고

성군 통일전망대에서 개막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최근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발맞춰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을 거점으로 펼쳐진다.

대회 첫날에는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고성군 일대를 돌아오는 코스에서 진행된다. 이틀째는 화천체육관에서 레이스를 시작해 마한가지로 화천군 일대를 달리는 코스에서 선수들이 페달을 밟는다. 최종일에는 파주 임진각 일대를 돌게 된다. 총 코스 길

이는 215.9km다. 이번 대회에서는 20개 팀 170명이 참가한다. 국내 자전거 동호인 대회로는 최고 상금인 2000만원이 주어진다. 전문 선수들이 참가하는 투르 드 코리아와 마찬가지로 스페셜 대회에서도 개인종합, 스프린트, 킹 오브 마운틴(산악구간), 베스트 영 라이더 등 개인 부문 수상자도 선정한다.

12회째 대회인 만큼 다양한색의 참가자도 눈에 띈다. 대회 참가자 중 최고령인 김동환(55)씨는 아들 김정우(25)씨와 한 팀으

로 안장에 오른다. 30년의 나이차에도 아직까지 라이딩 실력은 아버지가 한수 위다. 최연소 출전자 역시 큰 관심을 모은다. 최준영(17), 심민규(17)군은 2001년생으로 대회 참가자 170명 중 가장 어리다. 10대의 패기를 노련한 라이더들 사이에서 얼마나 선보일 지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재기(투르 드 코리아 조직위원장) 이사장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국내 대표 스포츠 이벤트 '투르 드 코리아 스페

셜 대회'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며 "올해 대회는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 기조 유지를 위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 민통선을 잇는 경주코스를 개발했다.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해당 거점지자체 관계자 여러분과 교통통제를 위해 도움을 주신 경찰청(서)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선전을 거쳐 당당히 대회에 나서게 된 선수들의 선전과 안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주최: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동아일보

주관: KCF

SPO-EX.COM

협찬: IBK기업은행 SHIMANO THULE

기간: 10월 7일(일)~10월 9일(화) 일정: 홈페이지(www.tourdekorea.or.kr) 참조

멀티스포츠 브랜드 (주)신한국아(대표 김한철)의 JDX 멀티스포츠(이하 JDX)가 2일 파라다이스티 그랜드볼룸에서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공식 유니폼 쇼케이스'를 열었다. JDX의 이번 공식 유니폼은 각 나라의 국기에서 차용한 요소를 바탕으로 디자인됐다. 참가한 8개국의 고유 색상을 녹여낸 트렌디한 골프웨어의 매력을 표현했다. 사진은 이번 쇼케이스에서 공식 유니폼을 입고 런웨이를 펼쳐고 있는 모델들. 국내 최초로 열린 여자골프 국가대항전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이 4일 개막한 가운데, 각국 대표들은 JDX가 제작한 공식 유니폼을 입고 필드를 누웠다. 사진제공 | JDX 멀티스포츠

## 은퇴 앞둔 강수연 "이젠 후배들 키우고 싶어요"

21년간 한·미·일 투어 통산 12승 하이트진로 챔피언십후 팬과 작별

"20년이 흘렀네요. 골프를 너무 오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일 투어 통산 474경기 출전과 12회 우승에 빛나는 강수연(42)이 4일 경기도 여주시 블루헤런 골프클럽에서 막을 올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이 대회를 끝으로 국내 골프팬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기 때문이다.

1998년 KLPGA 투어로 데뷔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일본여자프로골



강수연

프(JLPGA) 투어를 거치며 21년간 현역으로 활약한 강수연은 올해 은퇴를 결심하고 자신과 인연이 깊은 하이트진로 챔피언십(2000년 초대 대회부터 3연패)에서 공식 은퇴식을 치르기로 했다. 5일 2라운드 종료 후 후배들의 축하를 받으며 정든 필드를 떠난다.

대회 첫 날 공동 6위(1언더파 71타)에 오른 강수연은 "좋은 성적을 안고 국내팬분들과 다시 인사를 나누게 돼 기쁘다"며 활

짝 웃었다. 이어 "은퇴는 올해 중반 결심을 내렸다. 돌이켜보니 21년간 프로 생활을 했다. 후배를 양성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다"고 속마음을 밝혔다.

강수연은 한국여자골프의 살아있는 역사다.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각각 96경기과 174경기, 204경기를 뛰며 각각 8승과 3승, 1승을 거뒀다. 2003년 미국으로 건너가 8년간 활약했고, 2011년부터는 일본에서 현역 생활을 이어갔다.

강수연은 "처음 은퇴를 생각했을 때는 눈물도 흘렸다. 그러나 지금은 속이 시원하다. 아쉬움도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마친 뒤 일본으로 건너가 선수 생활을 정리하는 강수연은 현역에 대한 미련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해도 은퇴 번복은 없습니다."

여주 |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 "홈 팀 리버풀, 맨시티에 승리" 42%

축구토토 승무패 29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6일부터 8일까지 벌어지는 국내프로축구 K리그1 6경기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29회차에서 국내축구팬들은 리버풀(홈)-맨시티(원정)전에서 41.90%가 홈팀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무승부 예측은 30.25%로 나타났고, 원정팀 맨시티 승리 예측은 27.85%를 차지했다.

이번 시즌 EPL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두 팀인 리버풀과 맨시티가 만난다. 현재 두 팀은 승점 19점으로 2018~2019시즌에서 단 한 차례도 패하지 않으며, 순위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단, 득실차로 인해 맨시티가 1위(득실차 18), 리버풀이 2위(득실차 12)를 차지하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인 맨시티는 시즌 초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제기됐던 것처럼 개막 이후

무패의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 리버풀 역시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9월 29일 첼시와 기록한 1-1 무승부만 제외하면 개막 이후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사디오 마네가 공격을 주도하고, 새로 합류한 골키퍼 알리송이 수비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면서 매 경기 좋은 전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K리그1에서는 경남FC(69.45%)와 대구FC(57.97%)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고했다. 이어 전북 현대(51.83%)와 수원 삼성(51.56%)은 각각 51.83%와 51.56%를 차지하며 과반수 이상의 투표율을 선보였다.

강원FC-포항 스틸러스전은 무승부 예상(37.17%), 포항 승리 예상(32.68%), 강원 승리 예상(30.14%)로 나타났고, 전남드래곤즈-FC서울전은 FC서울 승리 예상(36.08%), 양팀의 무승부 예상(32.20%), 전남드래곤즈 승리 예상(31.72%)로 나타나 가장 승부 예측이 어려운 경기들로 평가됐다.

## 스포츠토토 시스템 업그레이드...2차 발매 중지

29일 0시부터 11월 4일 24시까지 환급·환불은 30일 0시부터 6일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가 10월 29일부터 약 일주일간 '스포츠토토 발매시스템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일시 발매중지에 들어간다.

발매중지 기간 동안에는 전국 토토 판매점 및 스포츠토토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팅맨의 토토 및 프로토 상품의 발매와 환급, 그리고 환불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발매가 중지되는 기간은 10월 29일 0시부터 1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이며, 환급과 환불은 10월30일 0시부터 11월 4일 24시까지 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단, 이전과 같이 이 시기에 환급, 환불 기간이 만료되는 상품의 경우 해당 기한이 자동으로 6일씩 연장된다. 발매가 재개되는 시점은 11월 5일 오후 2시부터이고, 환급 및 환불은 이보다 조금 앞선 11월 5일

활동 대상은 응급합니다. 스포츠토토 발매 수익금을 통해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변량이 높거나 스포츠를 즐긴 수 있도록 스포츠토토가 당신의 스포츠와 함께합니다. 케이토토

0시부터 이다. 정확한 정보는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 및 베팅맨(www.betman.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토토 휠체어테니스팀 박주연·임호원 2018 인도네시아 AG 패러게임 출전

케이토토 휠체어테니스팀의 간판 박주연과 임호원이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 패러게임에서의 최고 성적을 약속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는 "2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소속의 국가대표 박주연과 임호원이 이번 대회에서 최상의 성적을 다지는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휠체어테니스는 오는 7일부터 경기를 시작된다.

국내 여자 휠체어테니스 부문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박주연은 "금메달을 획득해 휠체어테니스 종목을 보다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1998년 생으로 스포츠토토 휠체어 테니스팀과 국가대표의 막내 임호원은 요즘의 젊은 세대답게 최대한 대회를 재미있게 즐기고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임호원은 최근 샌다이오픈 2관왕에 이어 지난 8월에는 말레이시아 휠체어 테니스 단식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등 상승세다.